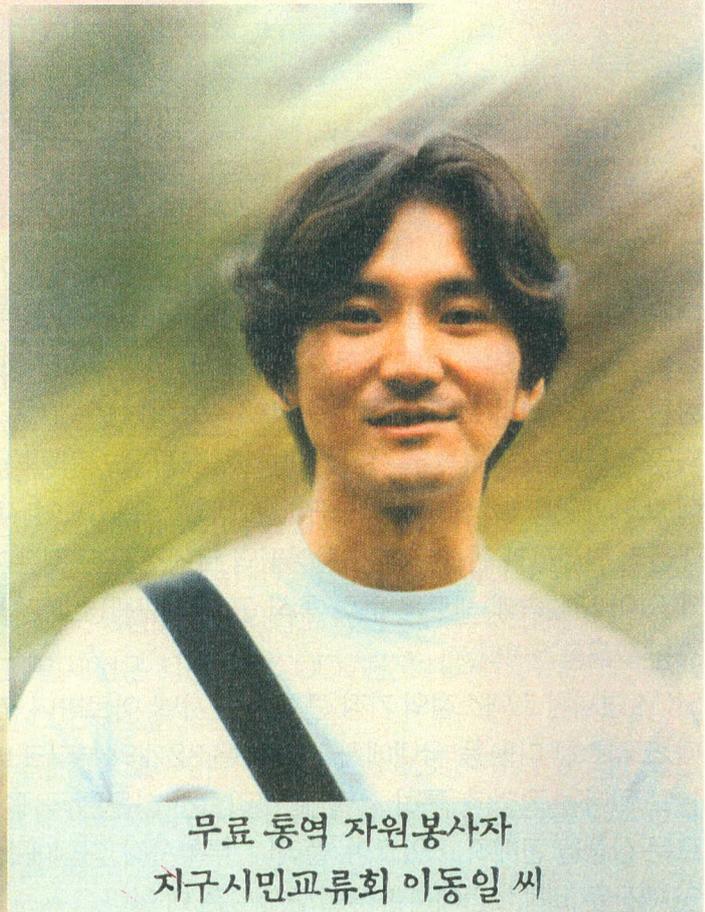


지구시민교류회(GCCG) 회장 이동일 씨의 이야기다. 이 모임은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도와주는 통역 자원봉사 단체로 1997년 발족됐다. 원래 도쿄도 생활문화국 국제부에 등록된 동경도방제어학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이들 중 뜻이 맞는 이들끼리 이 모임을 결성했다.

현재 한국어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터키어 등의 자원봉사자 41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이 직장인이고 대학생, 유학생 등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활동시간이 평일 저녁, 주말, 축일에 제한



무료 통역 자원봉사자
지구시민교류회 이동일 씨

일본어가 안돼 곤란할 때 출동합니다

“일본에서 일본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게 없지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도와주 듯이 말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한국어 등 41명의 통역자원봉사자가 활동

된다는 게 흠이라면 흠이다.

주로 이벤트, 강습회, 씨클활동 등의 통역을 비롯해, 기타 개인들의 절실한 요청에 따라 자원봉사자 중 시간이 맞는 이가 봉사하게 된다. 단 상담, 법률, 의료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통역은 하지 않는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기타 사정에 따라 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절대 응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 등 돈을 벌 목적으로 할 경우다.

처음에는 통역으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국제교류, 이벤트를 담당하는 이문화커뮤니케이션팀, 홈페이지 등을 작성 중인 광고부도 생겨 통역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교류도 시도하고 있다. 또 번역팀이 생겨서 영어번역도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통역이 불가능한 이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모임은 매월 300엔의 회원들 회비로 운영되는데 유학생 등이 참여할 경우에는 회비가 면제된다.

통역비는 무료다. 단 교통비와 장시간 통역으로 식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재일교포와 한국사람들 사이의 벽에 놀라

“전 고등학교부터 일본학교를 나왔어요. 재일교포이면서도 일본에 한국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몰랐어요. 게다가 막연히 한국사람들은 남자는 깡패, 여자는 술집아가씨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굳이 일러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이 정말 많고

다들 언어랑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서로 그렇게까지 모르고사는 게 놀라웠어요.”

이동일 씨가 이렇게 한국인이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전문학교 재학중 친하게 지냈던 한국 유학생 덕분이였다. 그는 이동일 씨가 처음으로 만난 한국사람이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에 와서 사는 외국사람들의 어려움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되기도했다.

그동안 <동경도 자매우호도시 소년축구대회> <한국, 일본, 호주 고등학생 단기 유학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국제교류회> 등 굴직굴직한 국제교류행사에도 통역으로서, 스태프로써도 활동해왔다.



97.8. 동경도 자매우호도시 소년축구대회 통역으로 활약했다.



98.6. 한국, 일본, 호주 고등학생 단기유학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의 입과 귀가 되어주었다. 뒷줄 빨간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이가 이동일 씨.



98.11. 청년들을 위한 국제교류회. 20개 대학 대학생 200여명(반은 일본인, 반은 외국인)이 모여 국제교류. 여기서 이동일 씨는 스태프 겸 통역으로 활약했다.



2000. 1. 영국,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왼쪽부터)에서 온 다국적 만남.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를 하는 한국친구에게 일본어를 한국어로 통역해주면 그걸 다시 각각의 언어로 바꿔줘야했던 좀 색다른 경험.

< 지구시민교류회 소식 >

1. 문의 및 신청

메일

팩스

2. 통역자원봉사자 파견

비용 ; 무료 (단, 교통비, 식사가 불가피한 경우 식사비 등 실비 지급)

시간 ; 평일 저녁, 토,일,축일

3. 회원 연중 모집

- 통역자원봉사자 ; 일본어 능력시험 1급 정도 (단 회화를 잘할 경우에는 자격 관계 없음)

- 이벤트자원봉사자, 스태프 ; 국제교류, 이벤트 등 기획에 참여.

* 유학생인 경우 회비 면제.

함께 일할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었으면

“때로 감정대립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정치적 문제는. 그럴 때 의견을 숨기기 보다는 끝까지 서로가 납득할 때까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정말 친해져요. 그냥 웃으며 만나는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럴 때 참 보람을 느껴요.”

그는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할 사람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한국사람은 많은데 왜 자원봉사자는 적은지 모르겠는 게 그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렇게 재일교포와 한국인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말 그대로 지구시민으로서.

취재 은미경